

12/15(수) 욱기 묵상 30

욱기 20:1-3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발은 욱기 19장에서 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그의 주장을 이어가게 됩니다(욱 19: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서 우리는 욱의 세 친구들의 주장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엘리바스의 주장: 은밀한 계시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했다. 2) 빌닷의 주장: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욱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욱의 미래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 3) 소발의 주장: 하나님이 욱의 범죄 사실을 일부 넘어가 주신다 해도 욱은 죄를 회개하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 욱의 죄가 현재의 고통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발의 주장은 누구보다도 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발의 두 번째 말

소발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욱을 죄인에 빗대어서 그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욱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조금하게 대답을 시작하고 초조한 마음을 표현하곤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2-3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고대 중동의 문화 가운데 지혜자의 어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소발은 그의 말을 가리켜 ‘나의 슬기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4-5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것은 시편 말씀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미 다른 친구들도 주장한 바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발의 말은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인은 그 시작이 비록 창대할지라도 그 결말은 결국 배설물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6-7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의 성공은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8절,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또, 악인의 자녀들은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에게 젊은이의 기운이 있어도 곧 죽어서 쓸모 없게 되리라고 말합니다(9-11절). 소발의 이러한 표현은 은유를 통해 악인의 허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소발은 12-23절까지 악인의 삶을 음식에 빗대어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이 입에 달아서 혀 밑에 감추기도 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삼키면 뱃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고 말합니다(12-13절). 또 상한 음식을 삼키면 토해내듯이 악인은 그가 삼킨 재물을 다시 토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15절). 그 이유는 악인들이 삼키는 악은 곧 독사의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은 그가 스스로 수고하여 얻은 것조차도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18절).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발은 철저히 악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서 악인의 악행이 아무리 숨어서 하거나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6-27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비록 소발의 말도 일반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러한 악인의 모습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발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하고 있지만 그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에 따르면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그가 당한 고난의 결과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소발과 같이 그것을 신앙의 열매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교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도 그 교세의 재정의 규모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성경적이고 올바른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교회들과 가난한 사역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매와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의 진짜와 가짜를 판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맹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소발이 이처럼 욥을 악인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욥을 회개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발언은 욥을 회개시키기는 커녕 그를 더 분노케 하고 또 욥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신학도 잘못되어 있었지만 그 접근법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공감과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올바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 영혼의 변화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지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특히 이곳 커네티컷 지역에도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에서 유혹 받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영어목회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몽골 김봉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